

# 정부, 공공분야 갑질대책 마련

### 개념·사례·대처요령 담은 '가이드라인' 수립 피해자 신고 장려... 보호 제도·징계 수위 강화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을 해결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0개 과제로 구성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공공분야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분야 갑질이 연이어 발생하고, 최근 일부 재벌 일가의 거래처 및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 갑질도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

가 "공공이 갑질문화 청산을 선도하겠다"며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실태 방어를 위해 지난 5월 공공 및 민간 분야 2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공분야 종사자가 민간을 상대로 관행적으로 갑질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대책으로는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정부는 인식 제고 등 예방에 초점을 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

드라인엔 ▲갑질의 개념 ▲갑질 여부 판단 기준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신고시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을 담는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고를 장려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해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이나 해당기관의 감사·감찰 부서로 넘겨 조사한다.

또 기관 내부에 갑질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문자로 운영되던 '국민콜 110'을 카카오톡과 연계해 민원 상담의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서

는 오는 12월까지 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징계기준을 높이고, 징계 감경 사유를 배제하는 등 제재수위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를 해당 보직 및 직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조치를 한다.

현행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 규정을 갑질 신고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갑질 피해자의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 등 소송 비용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교사 '알파', 간호사 '태움' 등 민간분야 직장 괴롭힘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가맹점 등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관행 점검·개선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뉴스



김승수 전주시장은 5일 전주시청에서 민선 7기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1심 판결 불복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동화 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가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고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김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징역 10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할 여지가 있는 데다 양형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고씨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이동화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때를 쓴다는 이유로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 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소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뉴스

## 청년문화예술대학 영화·연기 수강생 모집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창작활성화·실무역량 강화 목적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오는 11일까지 '청년문화예술대학 영화 연기아카데미'에 참여할 20명의 도내 청년문화예술인을 추가 모집한다.

재단은 '꿈으로 가는 길'을 '뜰' 사람들이 꿈으로 가는 길 '뜰' 사람들을 만나'는 주제로 전북청년문화예술인들과 기성 유명 연극 영화인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주선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문화예술대학 영화 연기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7월 21일에 개강해 9월 15일에 종강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진문화공간 오페라실에서 진행된다.

올해 '청년문화예술대학 영화 연기아카데미'는, 이영란 경희대연극영화학과 교수와 라이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전북회장과 및 예원예술대연극영화학과 교수가 매체연기 실기 중심

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현업에서 활동하는 3명의 연기와 배우들과 전북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특별한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오는 25일에는 배우 이주승, 8월 18일에는 배우 이순재, 9월 1일에는 배우 오지호가 함께한다.

청년문화예술대학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도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와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문화예술인은 7월 11일까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형 문화경제 실현하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5일 전주시청에서 민선 7기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평등을 일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성평등 향상·권익 증진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전주시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남성과 여성 간 평등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란)은 5일 시청강당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했다.

'평등을 일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주간 홍보영상 시청과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축하공연에 이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성평등 향상에 모범을 보인 시민과 우수 여성단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표창을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하면서 서로 조화로운 삶을 만들고 일상에 녹아든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 제작된 '아빠와 딸'이라는 제목의 연극공연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성평등 의식이 부족한지를 되짚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취업정보나눔터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활동사진 전시회, 전주시여성안정연대의 폭력 방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가정양립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홍보 전시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울림이 될 것이다"며 "평등이 일상이 되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일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됐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음주폐해예방사업 실무자 간담회 실시

경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대학생 서포터즈 등 참여  
"시민 건강증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 마련할 것"

전주시가 체계적인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학생 서포터즈 등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보건소는 5일 보건교육실에서 보건소 음주폐해예방사업 담당자와 완산경찰서,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전주서포터즈(전주대학교 SULLOW, 전주비전대학교 VIP) 등과 함께 음주폐해 예방사업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로 추진중인 음주폐해예방사업

에 대해 공유, 참여기관들은 매 분기별 완산·덕진구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 시 보건소와 전주 서포터즈가 참여하고 청소년 가상음주체험 등 청소년 건강체험터의 경우 대학생 서포터즈가 대거 참석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산경찰서와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음주폐해예방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병호 시보건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운 여름 시원

한 맥주가 생각나는 계절이지만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절주수칙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으로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간은 금주한다 △공인 내 음주, 흡연을 자제한다 등 안내를 하고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